

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,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

- 전국 17개 시·도 5세 이상 9,798명 단면 조사 -

- 주요 내용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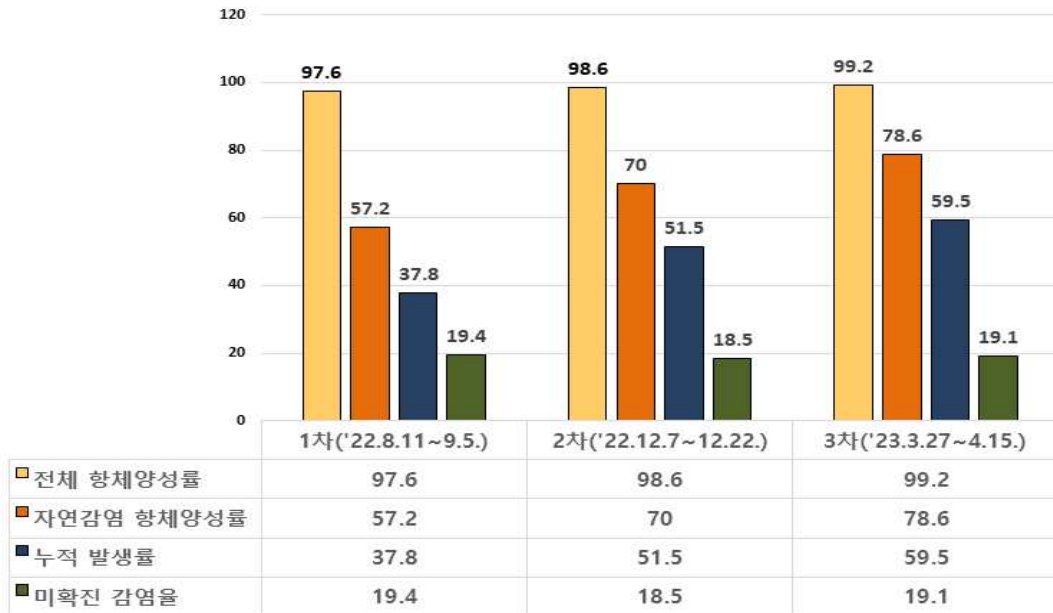
- 전체 항체양성률(백신면역+자연감염)은 99.2%,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.6%
-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률은 19.1%로 2차 조사 결과(18.5%)와 유사
-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(5~9세)에서 가장 높았으며(94.1%), 연령이 높아 질수록 낮아짐(65세 이상 68.8%)
-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및 미확진 감염률이 증가됨
- 코로나19 항체가는 백신 면역군(2회 이상 접종자) 및 복합 면역군(백신면역+자연감염)의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항체가가 감소되기에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 필요
- 백신 미접종자는 단가백신접종자에 비해 2.02배, 2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 3.1배 높은 재감염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 국립보건연구원(원장 박현영)은 한국역학회(과제 책임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동현)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*과 함께 진행한 「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」의 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전국 17개 시·도 및 258개 시·군·구 보건소, 131개 협력의료기관

이번 조사는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·도 5세 이상 주민 9,79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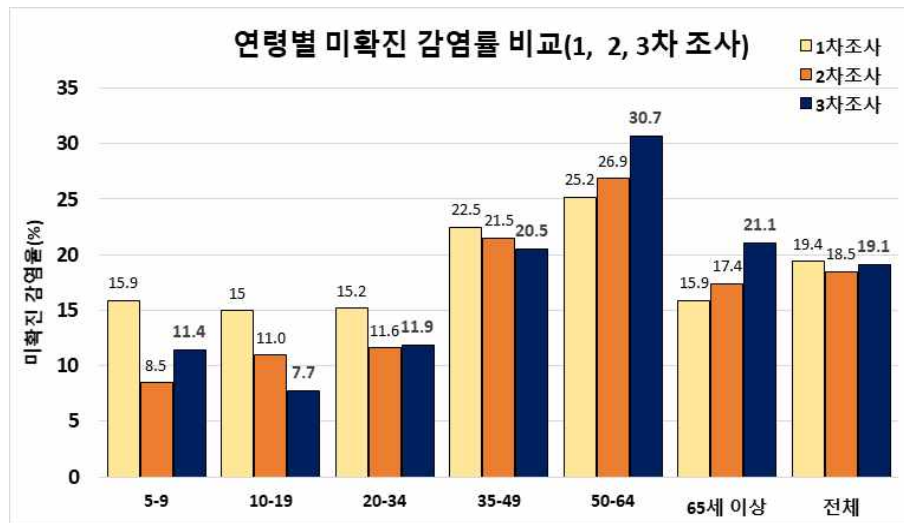
대상자 9,798명의 전체 항체양성률(자연감염+ 백신면역 모두 포함)은 99.2%로 2차 조사 결과인 98.6%와 유사하였으나,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.6%로 2차 조사 결과인 70% 보다 8.6%p 증가하였다. 다만,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률은 19.1%로 2차 조사 결과인 18.5%와 유사하였다.



연령별 항체양성률 분석 결과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(5~9세)에서 가장 높았으며(94.1%), 연령이 높아 질수록 낮아졌다(65세 이상 68.8%).

연령별	조사건수 (명)	전체 항체양성률(%)	(A) 자연감염 항체양성률(%)	(B) 동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(%) (23.3.22 기준)	미확진 감염률(%p) (A-B)	백신 누적 기초접종률(%) (23.3.22 기준)
5-9	136	96.3	94.1	82.7	11.4	0.7
10-19	577	97.8	88.9	81.2	7.7	49.8
20-34	885	99.5	79.7	67.8	11.9	98.2
35-49	1,816	99.4	80.2	59.7	20.5	95.7
50-64	2,612	99.5	77.0	46.3	30.7	98.0
65세 이상	3,739	99.7	68.8	47.7	21.1	96.1
전체	9,798	99.2	78.6	59.5	19.1	88.8

다만, 50세 이상 고령층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및 미확진 감염률이 2차 조사 대비 증가하였는데, 50세 이상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50-64세 77.0%로 2차 조사 대비 10.2%p 증가하였으며, 65세 이상 68.8%로 2차 조사 대비 11.3%p 증가하였다. 미확진 감염률은 50-64세 30.7%로 2차 조사 대비 3.8%p 증가하였으며, 65세 이상 21.1%로 2차 조사 대비 3.7%p 증가하였다.



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 등의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는데, 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.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는 `23년 1월부터 낮은 상황이다.

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는 백신 면역군(2회 이상 접종자), 복합 면역군(백신면역+자연감염) 모두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되었다.

이번 조사 대상자 중 백신접종력과 코로나19 감염력 등 기초정보가 확인된 7,430명의 코로나19 감염률은 59.3%였다. 이중 2회 이상 감염된 사람은 5.6%였다(`23.4.15. 기준).

백신접종과 재감염의 관계를 연령표준화로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단가백신접종자에 비해 2.02배, 2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 3.1배 높은 재감염 위험이 있음이 확인되었다.

본 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표본설계에 의해 전국 17개 시·도에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대규모 실태조사이기에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갖춘 국가 통계로,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자 및 감염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 내 재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백신 미접종자에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음을 확인하였다.

본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, 복합면역군(백신면역 + 자연감염)의 면역 지속이 백신 면역군, 백신 미접종 자연감염군 보다 오래 유지되고 있으며, 재감염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.

다만, 시간이 흐르면 **복합면역군**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**면역 감소**가 일어나기에 재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며, **중증화 예방**을 위해 **고령층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의와 하반기 백신 추가접종이 필요**하다고 설명하였다.

지영미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17개 시·도 지자체, 보건소 및 협력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, “향후 국내 코로나19 유행주의 영향 및 백신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	책임자	과 장 김병국 (043-913-4300)
		담당자	연구관 이준우 (043-913-4301)
	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임상연구과	담당자	연구원 도현남 (043-913-4305)
협조 부서	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권근용 (043-913-2320)
		담당자	연구관 이혜림 (043-913-2336)